



- 함께여는교회 예배 시간
주일 오전 11시 30분
- 함께 가는 공동체
뉴스앤조이, 교회개혁실천연대,
성서한국, 하나누리, 희년함께,
개혁자들, 촛불 교회, 스텔라데이
이지 대책위원회
- 교회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36가길 97(B1층)
- 교회 전화번호
02) 743-4113
- 교회 홈페이지
www.opentogether.org
- 교회 은행계좌
국민은행 089501-04-184175

섬기는 분들

교인총회의장	홍사성
교인총회서기	채은동
교인총회감사	윤범한
운영위원장	노희창
예배팀장	표승범
사회선교팀장	이지연
생활가족팀장	안용희
재정팀장	방태흥
나눔미대표	박상현
장로회	김대준
	김동훈
	송 건
	정모세
교육전도사	김 덕

교회소식 & 이웃소식

1. 한반도의 평화, 경제정의,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함께여는교회입니다.
2. 다음 주는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모입니다. 가족들과 복된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모세)
3. 10월 8일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정모세)
4. 오늘 예배 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노희창)
5. 9월의 동영상은 '오토라는 남자'(감독:마르크 포르스터, 출연: 톰 행크스, 마리나 트레비노 등)입니다. (정모세)
5. 9월28일 촛불기도회는 추석연휴로 쉽니다. (이지연)
6. 김석중, 유정옥 교우님의 딸 김유실님의 결혼식이 10월 9일, 오후 1시 10분, 여의도 웨딩컨벤션 3층에서 있습니다.
7. 함께여는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가족팀에게 말씀하시면 소정의 안내와 교육을 통해 함께여는교회 식구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용희)

함께여는교회

함께 여는 이야기

2023.9.21.(목) 촛불교회 기도문 하나님,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폭등해 우리 주머니 사정이 어렵습니다. 금리는 올라 매달 상환해야하는 주담보 대출이 많아졌습니다. 금리변동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저희 집은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억압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75%가 오염수 방류로 우리 해양과 수산물 오염을 걱정합니다. 국민 73%가 오염수 방류로 해양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54%가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은 과장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게 괴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립학술원은 안전한 방사능은 없다고 말합니다. 노출되는 방사능은 생물을 통해 누적되고 이것을 인간이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짓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20년 10월 현재 기술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제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4월, 그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규탄 및 한국 정부의 적극제거인 대책 촉구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그는 오염수는 가짜뉴스라고 단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의 오염수 문제는 최소 10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3년, 2033년, 2053년, 2123년...오염수에는 최소 64개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PS를 이용하더라도 삼중수소의 안전성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ALPS의 처리 과정과 표본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선별된 자료만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검증기관인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구입니다. 환경에 민감한 단체가 아니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바라는 단체입니다. 그러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자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방사능이라는 위험한 기술을 장담한 인간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그 2번이 많은 것을 죽음의 땅,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비행기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낮지만, 발생하면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매우 낮은 확률에도 비행기 탑승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에게 남겨진 특별한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모두 환경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하십시오. 일본이 자국에 오염수를 보관하게 하십시오. 전 세계가 원자력을 줄여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 지구의 환경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이며, 환경을 지키고 자연을 가꾸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저희의 삶과 지금 이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과 자연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여는교회 채은동

함께 여는 예배

오전 11시 30분	사 회: 예배팀장
침 목 의 기 도	자녀들과 함께
신 앙 고 백	자녀들과 함께
찬 양 의 시 간	자녀들과 함께
공 동 기 도	방 태 흥
성 경 본 문	사 회 자
말 씬 나 눔	방 인 성
환영/알리는말씀	담 당 자
송 영 과 축 도	다 함 께

예배위원

	9월 24일	10월 1일	10월 8일	10월 15일
예배인도	예배팀장	추석	예배팀장	예배팀장
대표기도	방태흥	가족과	박상현	홍사성
말씀나눔	김온양	함께하는	정모세	김덕영
점심준비	김현숙	예배	이동임	
점심 설거지	김대준 채은동		박상현 박종욱	송 건 김석중

함께여는교회 신앙고백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생명과 평화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여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임을 믿으며,
 이웃과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치유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섬김과 사랑의 도를 배우고 실천케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적용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긴 계시임을 믿으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여는교회 축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민 6:24-26)